

작년에 봤던 별자리 오늘밤 다시 본다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 '천체 투영관' 개관 날씨·계절 관계없이 날짜 입력하면 별자리 재현

국내 최초의 우주 체험 특성화시설인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 사계절 천문우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천체 투영관'(Planetarium)이 문을 열었다.

'천체 투영관'은 밤하늘의 모습을 사실과 똑같이 재현해 주는 시설로, 날씨·시간·계절에 관계없이 보고 싶은 날의 날짜만 입력하면 그날 밤하늘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동일면 덕흥리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 백희영 장관과 박병종 고흥군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천체투영관 개관식을 가졌다.

천체투영관은 총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98석 규모의 투영실과 보조관

측실을 갖췄다. 국립 우주체험센터는 그동안 우주항공 및 천문우주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으나, 구름이나 안개가 하늘을 가릴 때는 별을 관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천체투영관은 직경 15m인 알루미늄 돔 스크린을 갖췄으며 투영기(Digital Projector) 6대를 가동시켜 우주의 별자리를 재현한다. 또 보조관측실에는 영상교육과 연계해 실제 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있도록 3만 개에 달하는 투프를 설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는 기존의 우주항공 체험뿐만 아니라 별의 생성, 소멸, 우주의 기원 등 본질적인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균형을 갖춘 체험 및



교육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문을 연 국립 고흥 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건축면적 1만 3000여㎡에 우주체험 활동관과 226명이 동시에 먹고 잘 수 있는 생활관(지상 6층 규모)을 갖추고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체험 활동관은 우주 적용 모듈과 우주선 발사 모듈, 임무 수행 모듈 등을 갖췄다. 야외에는 로켓 발사장과 전파대, 타임캡슐 광장, 13개 쉼터 지체코스 등이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u@



여수박람회 준비 과정 전국 어린이들에 생생 보도

청와대 푸른누리 기자단 80여명 오동도 등 취재

청와대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단'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건설현장을 찾아 열린 취재 활동을 펼쳤다.

80여명의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단'은 지난 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건설현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박람회 준비과정을 취재하고 여수의 대표관광지인 오동도 등을 탐방했다.

여수시와 청와대는 국가행사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단'에게 박람회 취재 동기를 부여하고 박람회 준비과정 등을 전국 어린이들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어린이 기자 고현준(12·서울 신원초 5학년)군은 "한국관과 국제관등 굵직한 건물들이 우람하게

들어서고 있는 박람회 건설현장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놀라워 했다"며 "푸른누리 신문을 통해 여수 박람회를 잘 모르는 전국 친구들에게 박람회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른누리 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으로 매일 2회 발행된다. 기자단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7413명이 활동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고흥 동강농공단지 잔여 용지 분양

3.3㎡에 24만6000원~ 입주업체 세금면 등 인센티브

고흥군이 식료품 전문단지조성 동강 농공단지의 잔여용지가 분양된다.

동강농공단지는 지난달말 준공에 앞서 7개 업체가 7만2600여㎡(74%)를 분양받았으며, 현재 잔여용지 2만 6000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친환경 식료품 전문단지조성 지역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과 식료품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3.3㎡에 24만6000원,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입주

업체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분양 업체 중 3곳은 이미 공장 건립 등을 마쳤으며 다음달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동강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151억 원이 투입돼 3년여 조성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으며 전체 조성면적 14만 5000여㎡ 가운데 분양용지 9만8000여㎡를 제외한 5만여㎡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생산지원시설, 공원, 완충지구 등으로 조성됐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u@

광양시민 백운산 되찾기 등반대회

서울대 학술림 사유화 반대

광양시민들이 서울대 법인화로 서울대 학술림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백운산을 지키기위한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5일 광양 육룡면 백운수련관 주차장에서 백운산 지키기 등반대회를 열고 서울대 학술림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한다.

광양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로 백운산내 80km의 학술림이 사유화될 위

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이 중심이 돼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또 지리산 안 82km의 서울대 학술림이 있는 구례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등이 모여 지리산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들 2곳의 서울대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2년 도쿄대 연승림으로 편입돼 광복 후 서울대가 넘겨받은 것으로 사실상 '일제 잔재'라며 "등반대회 날짜를 광복절로 잡은 것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집중 폭우 토사에 휩쓸린 부상자 극적 구조

광양 진상면 김치수 이장

마을이장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수해로 중상을 입은 주민을 극적으로 구조해 후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4일 광양시 진상면에 따르면 태풍 '마이파'의 영

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일 밤 진상면 지계마을 주민 강모(63)씨가 집 주변을 살펴다 토사에 휩쓸려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폭우로 도로가 막혀 119 접근은 물론 후송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날 자정께 급박한 사정을

접한 이웃 비촌마을 김치수 이장은 자신의 꺾로와 차량을 이용해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를 지나 강모씨를 1시간 30분 만에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성호 지계마을 이장은 "약천 후속에서도 위험과 생명을 무릅쓰고 공무원들과 김치수 이장이 마을 사람을 살려 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 북

국악 경계 허물어 대중속으로

전주소리축제 프로그램 확정... 다양한 음악 장르 접촉

다음달 열리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국악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목해 국악 대중화를 꾀한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주시 최명희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개 프로그램에 261회 공연으로 구성된 '2011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축제의 중심인 판소리 분야에서는 먼저 판소리를 새롭게 해석해 길놀이판, 춤판, 소리판, 창극판으로 꾸민 '광대의 노래'가 신선택 첫선을 보인다.

김경호·장문희·박복희·이난초 명창이 각각 작곡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를 들려주는 '판소리 다섯바탕'과 전통 기악인 산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조의 밤', 음반으로 옛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는 '옛 소리의 초대'도 펼쳐진다.

국내 초청 분야에서는 퓨전 국악그룹인 '아나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국내외 공연을

하는 '정가악회', 다양한 장르를 섞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는 '재천&미연', 국내 유일의 생활 전문연주자 김효영 등이 초청돼 무대에 오른다.

또 창작 국악그룹 '그림'이 음악과 판소리, 그림이 결합한 창작 판소리 음악극 '몽유록'을 선보이고 사물놀이 공연단인 '사물광대'는 이장식 트리오와의 협연을 통해 동서양 음악의 결합을 시도한다.

외국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 보컬리스트인 '수자나 바카', 스페인의 촉망받는 플라멩코 가수이자 음악감독인 '디에고 게레로', 에티오피아의 유명 가수와 호주의 아티스트들이 결합한 7인조 밴드 '더럽 더 엠베서더',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의 4인조 밴드 '일스 스트림 밴드'가 전주를 찾아 격조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도 라자스탄의 가무악도 무대에 올러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다문화가정 어린이 과학캠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지난 1~12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초청해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연 과학캠프에서 어린이들이 종이접기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항, 中 교역 거점항 만든다

국토부 제3차 항만계획·2020년까지 9선석 늘려

군산항이 중국 교역의 거점항으로 개발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확정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군산항이 중국 교역거점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성장 중심항으로 적극 육성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군산항을 인근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으로 개발하고, 현재의 내항(內港)과 준설도 투기장을 친수공간 및 도심 공원으로 연계해 개발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건설된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군산항의 부두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존의 목재와 철재, 시멘트 등으로 분산돼 처리 중인 하역작업도 자동화부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군산항은 지난 6월 말 목재부두 2선석(5만t)과 잡화부두 1선석(3만t)을 준공한 데 이어 8월에도 잡화부두 2선석(3만t), 2012년에는 모래부두를 완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완주 돈의마을 공동체 회사 '한우 두레농장' 개장

완주군은 화산면 돈의마을에 자립형 마을공동체 회사인 '한우 두레농장'을 만들고 지난 12일 개장했다.

두레농장은 완주군이 지원한 시설비 2억원과 마을 주민 18명이 출자한 2억7000만원으로 축사를 짓고 한우 220마리를 사들여 문을 열었다. 출자한 주민이 공동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유통시킨 수익금을 나눠 갖

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은 직접 기른 총채보리를 사료로 쓰고 친환경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생협 등에 유통할 계획이다.

이 농장은 완주군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회사로, 연차적으로 100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도 농기원 무늬종 무궁화 신제품 '두리' 육성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무궁화 품종중 잎과 무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두리'를 출원해 조만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신제품 무궁화 '두리'를 개발해 국립 종자원에 출원 등록했으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증식 중이다. '두리'는 무늬종(백복룡)으로 화색이

밝고 화사하며 향단심 계통의 흠뻑으로 개화한다. 꽃 크기는 5~6cm 정도로 작으나 꽃피는 일수가 길어 관상용으로 적합하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두리' 품종 무궁화를 관공서와 일반 농가에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익산 왕궁 정착농원 수질관리 주민도 참여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의 대표적 수질 오염원으로 꼽혔던 익산시 왕궁 정착농원 지역의 수질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관리된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이한수 익산시장, 이완우 익산농장 대표 등은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왕

궁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왕궁농원내 축산 밀집지역 주민들이 오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약속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김제 황산 면민의 날 내달 24일 열기로

'제6회 김제시 황산 면민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24일 황산초등학교에서 열린다.

황산 면민의 날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9월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추석과 중복됨에 따라 일정을 늦춰 관내 주민과 출향인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로 펼쳐진다.

1부에서는 식전 행사와 함께 자랑스런 황산인 표창 등이 열리며, 2부로는 단체 줄넘기 등 주민화합 민속체육행사, 3부에는 가수과 국악인을 초청해 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진안 부귀중 아토피 예방 친화학교로 조성

진안 부귀중학교가 아토피 예방 친화학교로 조성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진안군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시설과 주변 환경이 우수한 부귀중학교를 아토피 친화학교로 선정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까지 부귀중에 급식소를 신축하고, 20억~30억원을 투입해 특별교실을 증설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